

서점에서 '퇴출' 당한 정치학 '총체적 인간학'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배병삼 | 성심외국어대 정치학과 교수

현대 일본 정치사상사의 기초를 확립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어느 책 서문에 써놓은 일화가 생각난다. 그의 책을 도대체 어느 서가에다 꽂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서점 주인의 푸념으로 시작되는 대화였다. 말하자면 마루야마의 전공은 “일본-정치-사상-사”로 쪼개지는데, 그의 책은 ‘일본’ 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 ‘정치’ 분야에도 넣을 수 있고, ‘사상’ 분야에도 넣을 수 있고, 또 ‘역사’ 분야에도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도 넣지 않을 수 있는 경계의 불분명함에 대해 조크를 곁들여 지적한 것이었다. 마루야마의 답변인즉, 대학 내의 위상도 그렇게 애매하다면서, 독서 대중과 만나는 서점 주인들께서 좋은 쪽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뭐 그런 전형적인 일본식 답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대화가 마루야마 정치학의 ‘행복한’ 변명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근래 한국 정치학 서적들이 겪는 ‘불행한’ 현실 때문이다.

얼마 전 부산에서 그 중 크다는 서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정치학 분야의 서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경제학, 법학의 사이쯤에 있어야 할 정치학 서가가 사라지고 몇몇 되지 않는 교과서들이 통로 옆 판매대에 꽂혀 있었다. 명색이 정치학 전공자면서도 서점에서 신간을 훑아본 지 꽤 됐으니, 언제부터 그리 됐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두망찰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한국 정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가의 머리말에 붙은 이름표가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살이가 시

작될 적부터 존재했던 ‘고전적’ 학문이 금방 사라질 리야 없겠

지만, 그러나 서점에서 ‘이름’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그

학문이 당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또는 소비

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징표로 읽기

에 넉넉한 것이다. 고요해 보이는 숲속

이 실은 식물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이듯, 적요한 서점의 서가도 서로

좋은 목을 차지하기 위한, 혹은 얼굴이러

도 내밀기 위한 책들간의 전쟁터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 서적이 이토록 내몰리는 데는 까닭이

있을 터인데, 우선 첫손가락에 짚이는 것이 정치학적

주제가 가진 이른바 ‘거대담론’ 적 성격이다. 공동체, 질서,

그리고 이념을 연구하는 정치학은, 90년대 들어 문화계 전반을 휩쓴

포스트모더니즘 열풍에서 분명하듯,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삶의 주제를 다루는

오늘날의 추세와는 기본적으로 엇갈린다.

하긴 그랬다. 한국 정치학은 그 출발부터 거대담론이었다. 1940~50년대 우리

사회의 주제는 새나라의 건설과 전쟁 복구, 즉 ‘건국’과 ‘재건’이 급선무였다.

이때 세워진 대학들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보성전문이 ‘고

려’ 대학으로, 혜화전문이 ‘동국’ 대학으로 개명한 것도 그렇거니와, ‘건국’ 대학,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단국’ 대학, 그리고 ‘국민’ 대학과 같은 신생 대학의 이름들은 직접적으로 정치학적 이슈를 드러내고 있다. 민족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을 당시 대학들은 존재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이 정치학이었던 것은 능히 짐작된다.

그후로도 이 땅의 긴절한 사회적 의제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민주화와 통일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근 3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한 중요한 정치학적 주제였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몰락에서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그 급격한 소멸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으니, 1970~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서재를 훑어보면 그 변화를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종속이론, 프랑크푸르트학파에 대한 소개서들과 그람시·알튀세르, 그리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빛바랜 원전들. 하나 이들은 이제 더이상 서점의 진열대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정치’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치적 영웅에 의해 국가의 흥망이 결정되는 시대도 아니려니와,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민족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 완전히 새롭고 색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도 정치적 현상은 발생하고 또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과거의 정치학 연구 방식으로는 옹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편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 나온 조크, “이번 선거를 결정지은 것은 ‘북풍’이 아니라 ‘소풍’이었다”(총선 사흘전에 발표된 남북정상회담이 미친 효과보다는, 선거날이 원래 좋은 날씨여서 다들 놀러 가버렸다)는 우스개가 상징하듯,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력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듯 서점의 서가에서 정치학 관련 서적들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치학 내부에서 이 퇴락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인가. 그것은 정치학이 ‘실용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정치학의 실용성이란 요컨대 유능한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1960년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인은 민간 부문에서 형성되기보다는, 대부분 군부에서 공급됐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 정치학은 실용성보다는 저항과 비판을 더욱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됐다. 그러나 학문을 온몸으로 불사를 수는 없는 일, 한국 정치학은 점점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었다. 묘하게도 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수입된 행태주의는 이런 현실도피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이었으니, 한국 정치학은 점차 인간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하며, 현실 정치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체질화했던 것이다. ‘과학’을 위해 ‘정치’로부터 멀어진 셈인데, 벌써 이 속에서 ‘정치-과학’이란 말은 자기모순에 빠진 언어가 됐고, 한국 정치학은 그 현실성과 당대성을 박탈당한, 아니 내다버린 꼴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정치학은 ‘사람 교육’이 아니라, 당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한 분과가 됐으니, 사람이 사라진 곳에 이념의 깃발이나 종교적 이상이란 한낱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은 동서의 지성사가 증

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와중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수험서나 교재로서 정치학 서적의 집필에 매진했는데, 한때 다종다양한(그러나 천편일률적인) 정치학 교과서들이 넘쳐나곤 했다. 아직도 과연 정치학의 연구와 교습에 ‘교과서’가 필요한 것인지 미심쩍거니와 여하튼 이제 는 지도(교과서)는 많은데 길가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실례를 무릅쓰고 속내를 드러내자면,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정치학 퇴락의 출발은 문리과대학에 소속됐던 서울대학의 정치학과가 70년대 중반 사회과학대학으로 옮겼던 데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온 터다. 시적(詩的)이고 미적(美的)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문사철(文史哲)이 아우러진 문리대의 정치학과, 계량과 통계, 수치와 실증으로 인간을 대상화하는 사회과학 속의 정치학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격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을 주제로 삼기는 학문과 인간을 수동태적 존재로 대상화하는 학문은, 그 소재는 같을지라도 그 관점은 크게 다른 것일 터다. 출발점은 미세하게 다를지라도 그 끝은 천양의 차이를 가르는 법이다. 어쩌면 정치(精緻)한 과학이 되지도 못하고, 고전시대 이래 인간에 대한 지혜를 교습할 기회도 놓쳐버린 어정쩡한 모습이 오늘의 한국 정치학이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시대적 변화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차치한다면, 정치학 자체의 성격을 재조정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하리라. 제안하자면 ‘정치과학’으로부터 ‘인문학으로서 정치학’으로 전환이니, ‘사회’에 대한 관심에 앞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그 시야를 좁히는 일이다. 그것은 곧 보편에서 특수로의 철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매양 서구의(특히 미국의) 과학적 관점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눈길을 되돌리고 낮추는 일을 시급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학을 아우르면서, 또 경제학과 법학을 벗으로 삼는 학제간 연구의 중심으로서 정치학, 또는 ‘총체적 인간학’으로서 정치학 책이 서가를 다시 채울 때, 일본 책방 주인의 고민 아닌 고민과 마루야마의 행복한 응대를 우리 정치학자들도 함께 할 수 있을 터다.●